

2018.9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8년 9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주)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수		비고
		위원	방송사	
2018.9.27	대전MBC 대회의실	9/11	7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신성철, 함진호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사장, 이재근 경영기술국장, 박선자 편성제작국장, 신영환 보도국장, 서주석 사업국장, 정수진 방송기술센터장, 임세혁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7	11	-	-	18	-	18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15	2	1	18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10건	10건	8·9·10월
보도	뉴스 프로그램의 진행자 호흡 잘 맞추어 시청자들에게 안정감을	뉴스 저녁, 아침뉴스 2MC 체제 구축하여 안정된 톤으로 뉴스진행하고 있음.	8·9월
보도	뉴스를 소셜미디어 활용하여 젊은 시청자층도 확보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플러스, 페이스북 등에 대전 MBC 뉴스 연동하여 활용	9월
교양	정규 TV 프로그램 예고를 제작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주길	시사플러스 등 “TV프로그램 예고” 제작해 방송	9월
보도	연구단지 과학 뉴스 확대를	“이효성 방통위원장 ETRI방문, 기술개발 점검(9/14), 연구성과 사업화 돕는 SB플라자 개소(9/18)” 등 방송	9월
보도	대전지역 게릴라성 폭우 재해방송 만전을	폭우피해 복구(8/29), 물폭탄, 산사태 우려(8/31), 큰 비 예고 현장 생방송(9/2, 9/3) 등 폭우 관련 집중 보도	8·9월
보도 교양	청년 문제 관심 있게 보도를	뉴스데스크 재래시장 청년창업 성공률?(10/1) 등 보도, TV시사프로그램 “대흥동, 청년 시민자산화를 말하다”(9/7) 방송	9·10월
보도	소외계층에게 보다 더 많은 관심을	뉴스데스크 “다문화가족 한마당(9/16)” 등 보도	9월
스포츠	스포츠 소식 “한화이글스” 심층적 분석 기획 보도를	“역대최대 관중 10만명 돌파(10/2), 한화이글스 가을야구 (9/23)” 등 분석 뉴스 선보여	9·10월
교양	시사 프로그램 어떤 사안을 다룰 때 양쪽 의견을 균형 있게	시사플러스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9/17), 문화재 한수정책 제자리를 찾고 있나?(10/1) 찬반 입장 담아	9·10월
교양	교양 프로그램 자막 처리 표준어 활용을	“모든 것 연구소 올랩” 한국대중가요사(9/11. 9/18) 자막 표현 어법에 맞게 활용	9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임기: 2018. 5. 01.~2019. 4. 30.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비고(임기)
위원장	신성철	KAIST총장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과학기술단체	18.05.01~ 19.04.30
	송길현	목요언론인클럽 고문	목요언론인클럽	언론관련단체	18.05.01~ 19.04.30
위원	김경희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표	대전여성정치 네트워크	여성단체	18.05.01~ 19.04.30
위원	함진호	ETRI 표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ETRI	과학기술단체	18.05.01~ 19.04.30
위원	권부남	대전 청소년 위캔 센터장	대전YWCA	청소년단체	18.05.01~ 19.04.30
위원	정대식	금성백조주택 사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18.05.01~ 19.04.30
위원	이용원	월간 토마토 편집인	(사)문화유산올림	문화단체	18.05.01~ 19.04.30
위원	김은주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18.05.01~ 19.04.30
위원	김종남	대전YMCA 사무총장	대전YMCA	소비자단체	18.05.01~ 19.04.30
위원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학부모단체	18.05.01~ 19.04.30
위원	양선희	대전대학교 글로벌융합창의학부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관련단체	18.05.01~ 19.04.30

*김경희, 권부남, 정대식, 이용원, 김종남, 양흥모, 양선희 위원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9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p>“승용차 버스정류장돌진 7명 중경상(뉴스 데스크 9/7) “기사를 살펴보겠다. 기자는 ‘경찰은 50대의 여성운전자가 운전미속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보도했다. 그런데 교통사고 보도에서 운전자의 성별을 굳이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뉴스 보도로 인해 여성 운전자가 ‘김여사’ 로 비아냥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남성과 여성 사이의 이성혐오가 심해질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교통사고를 보도할 때 운전자의 성별을 꼭 알려주어야 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성별을 특정해서 보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김은주).</p>	<p>사건사고 본질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성별, 직업 등은 최대한 배제하도록 하겠다.</p>			
보도	<p>“퓨마 탈출부터 사살까지 4시간 반(뉴스 데스크 9/19)” 뉴스를 보자. 전 국민이 접한 가슴 아픈 사건으로, 앵커의 멘트 중 ‘안전문제에 경종을 울렸다’ . ‘허술한 위기대응이 불러온 인재였다’ 는 부분은 핀트가 조금 어긋난 것 같다. 이 사건으로 다치거나 위험에 빠졌던 시민들은 아무도 없는 반면 동물원 안에 있었던 퓨마가 사살 되었는데,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고, 더불어 동물원 폐지 청원이 일어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살된 퓨마에게 감정이입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시민의 안전과 인재 타령만 하니 뉴스가 식상하고 성의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고, 시대의 감성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었다.</p> <p>대전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안타까운 부분을 더 신경 써서 보도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었으면 좋았을 것같아 아쉽다(김은주).</p>	<p>해당 사건은 ‘대전오월드’를 관리하는 대전도시공사에서 안전관리 부실 책임에 대해 ‘대시민사과’까지 한 전형적인 인재였다. 아울러 동물원 폐지 청원을 비롯한 동물권 보호에 관해서도 대전 MBC는 적극적으로 후속 보도를 했다. 또한 일부 매체에서 퓨마 포획 오보를 한 것과 달리 현장에 취재기자 2명을 투입하고 SNS를 활용해 사건 전개 상황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했다고 자부한다. “다치거나 위험에 빠졌던 시민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주장도 일견 일리 있지만, 대전시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할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리포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열려 있던 당시 소풍 나온 학생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이 오월드 안에 있었던 점도 퓨마 사살 적절성 논란 못지않게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보도에 관해 부족함은 있어도 과잉은 없다고 생각한다.</p>			○
보도	<p>이번에 시청한 프로는 9월 9일 방영된 시사토론이다. 시의 적절한 주제였다고 본다. 하지만 토론자로 3명의 패널중 현대학 교수 2명이 출연하는 것을 보고 토론</p>	<p>구조조정의 추이를 보고 보다 진일보한 지역대학 관련 토론을 준비하겠다. 또 고교 등 지역 교육에 대한 이슈에도 주목하겠다</p>	○		

	<p>주제인 ‘대학구조조정, 지역대가 살길은’이란 주제에 객관적으로 토론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물론 토론은 잘 이루어졌지만 이번 교육부의 대학진단평가와 구조조정안에 대해 너무 비판적으로만 지적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토론할 수 있는 패널을 섭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시사토론에서 요즘 서울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하는 학생두발 자유화에 대해 대전지역 학생들의 의견이나 학부모, 교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뤄주면 흥미 있을 것 같다(권부남).</p>			
교양	<p>시사플러스에서 “흔들리는 유성관광특구 활로는 있는가?”라는 주제로 유성의 문제를 짚어 보았다. 현재 지역의 중요 이슈를 시의적절하게 잘 다루었다고 본다. 유성관광특구가 활황이던 시절을 짚어주고 쇠락해 가는 과정과 현재 모습을 다루고 있는 그 이유를 찾는 것은 논리적으로 필요한 대목이지만 같은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들었다.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서도 유성관광특구라는 특정 지역의 이야기가 일반론적인 관광트렌드에 관한 이야기에 묻히는 경향성이 있다. 좀 더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유성관광특구 문제를 통해 도시관광이라는 측면에 관심을 둘 수 있도록 환기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다(이용원).</p>	<p>지역의 주요한 이슈지만 조금은 식상해져버린 문제에 천착하는 아이템이었다고 자평한다. 평가에 감사드린다. 제작 기간의 한계 탓에 다양한 사례와 대안 제시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최대한 다양한 논리가 근거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p>		
교양	<p>“지방이 사라지고 있다(시사플러스 9/17)”에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도시소멸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잘 다루었다. 지방분권과 도시재생이라는 최근 핵심 정책사업을 도시소멸 대안으로 제시하여 다룬 것은 적절했다고 본다.</p> <p>대전과 충남 각 도시와 대구 등 다양한 곳을 취재한 것이 폭 넓은 이해를 돕기는 했지만 공주시 등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충남의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면 오히려 시청자 이해를 돕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이용원).</p>	<p>다소 원론적인 접근 위주로 이루어진 아쉬움이 있다. 공주는 물론 청양 등 지역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더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p>	○	
교양	<p>최근 “모든 것 연구소 올림”을 보면 방송런칭 후 지역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다루</p>	<p>해당 아이템의 성격에 따라 지역적인 문제들이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또 역으로</p>	○	

	<p>던 소재가 의열단과 여성 독립운동가, 대중가요의 역사 등으로 지평을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방송사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 소재를 지역에 한정하여 할 필요는 없지만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지역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본다. 시청률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역콘텐츠를 발굴해 축적하는 것도 지역 언론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프로그램은 좀 더 지역에 밀착했으면 좋겠다(이용원).</p>	<p>지역의 경계를 벗어난 이야기들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본다. 지적대로 가능하면 지역에 천착하는 아 이템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다.</p>			
교양	<p>대전MBC 시사플러스 한 달 간 제작한 프로그램 제목을 보면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9/17), 광복회에 민주주의를 허하라!(9/10), 흔들리는 유성관광특구 활로는 있는가?(9/3)” 등 이었다. 현재 지역의 주제를 잘 담아내고 있다. 현재의 문제에 대한 진단도 잘 표현되어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 약해 이 부분을 조금 더 담아주었으면 좋겠다(김종남).</p>	<p>지역의 시사프로그램으로서 지역의 이슈와 현안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리라 본다. 물론, 지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단순한 행정구역의 문제를 벗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지적대로 최대한 지역의 이슈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겠다.</p>			
보도	<p>“뉴스 투데이(9/25)” 를 살펴보았다. 첫 뉴스로 쌀쌀해진 날씨와 주간 기상 등을 깔끔하고 색깔 있게 전해준 기상캐스터가 돋보였다. SNS를 통한 민원 처리 뉴스는 신선했고 시청자들에게 좋은 정보였다. 스포츠투데이의 가을 야구를 앞둔 한화야구팀의 전력분석도 심층적이면서도 간결해서 의미 있었고 한용덕 감독의 인터뷰도 적절했다고 본다. 단 본사MBC뉴스투데이와 대전MBC뉴스 투데이 사이의 S.B처리로 단절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할지 연구과제로 삼아야할 듯싶다(송길현).</p>	<p>뉴스투데이 방송 시 서울에서 로컬로 이어지는 부분의 연속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편성국과 협의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또한 날씨 보도와 관련해 최근 화면 화단에 지역별 기상 상태를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아침 뉴스 시청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p>	○		
교양	<p>“FM 모닝쇼·오후의 발견·정오의 희망곡” 등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라디오’ 를 진행하고 있다. 전통적 라디오 청취와는 다른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시도로 청취자와의 친밀도를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된다. 유튜브를 통해 접근한 청취자들에게 대한 다양한 시각적 보상(볼거리 제공)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양선희).</p>	<p>일단 좋은 평가에 감사드린다. 지적하신대로 현재는 진행자 위주의 프로그램이 다수라 시각적으로 볼거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새로운 코너 신설과 패널 투입 등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늘려가도록 노력하겠다.</p>	○		
교양	<p>“흔들리는 유성관광특구 활로는 있는가?” (9/3)</p>	<p>2주 정도의 짧은 제작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가능하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p>	○		

	<p>유성관광특구의 위기에 관해 현황은 물론 원인을 외부적, 구조적, 근본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하고,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마련 등 대안까지 제시하는 짜임새 있는 구성이었다. 다만 호텔 및 상가 상인, 전문가 등의 취재원을 중심으로 하고, 소비자인 일반시민의 의견은 자료에만 의존해 생동감이나 전달력에서 미흡했다. 실제 방문 경험이 있거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일반시민의 인터뷰가 아쉬웠다(양선희).</p>	<p>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p>			
<p>교양</p>	<p>“지방이 사라지고 있다(9/17)” ‘지방소멸-도시재생-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러나 지방소멸의 위기의식을 가진 충남 지역이 직면한 상황과 대전, 대구, 청주 등 대도시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다양한 지역전략산업이나 인구정책 등의 방안은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지방소멸과 도시재생을 동일선상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클로징에서 지방소멸 대응방안에 대한 대전시의 느린 행보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구체적이거나 설득력 있는 비판점 제시가 눈의 띄지 않았고, 오히려 충남 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생각된다(양선희).</p>	<p>내부적으로도 지방소멸과 도시재생의 연관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 지적에 동의한다. 클로징의 문제 역시 단순한 말의 성찬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와 대안에 입각한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하겠다.</p>			
<p>보도</p>	<p>시사토론M "공공기관 지방이전 또 소외된 것인가?"(9/1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해 지역, 지역민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유익했다. 패널 선정 및 전반적인 구성도 매끄럽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방송에서 노출되는 대전 중심의 보도에서 탈피한 대전과 충남의 균형도 돋보였다. 지역에 대한 이해와 국토 균형발전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지역의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양선희).</p>	<p>앞으로도 지역 발전, 지역 분권에 대한 의제 등을 충실히 다루겠다.</p>	○		
<p>교양</p>	<p>“생방송 아침이 좋다(9/21)”를 시청하였다. 개국 54주년을 맞아 사진사연 코너, 아침N퀴즈, 초대석 등에서 대전MBC 관련 주제로 진행한 부분은 유연하고 적절한 구성이었다. 그러나 지역민과의 소통과 참여가 방송사의 적극적 취재 등 방송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사진을 보내거나 퀴즈에 참여하는 경우로 국한되어 보다 지역시청자의 다양한 목소리</p>	<p>해당 방송일과 실제 창사일이 1주일 가까이 떨어져있다는 판단에 적극적으로 창사 관련 구성을 하기에는 부담감이 있었다. 이로 인해 조금은 소극적인 내용 구성이 이루어졌던 것 같다. 좋은 의견 참고하겠다.</p>	○		

	를 들을 수 없는 폐쇄적 유형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있다(양선희).			
보도	<p>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빠른 속보를 보내 좋았다. 특히 얼마 전 시민을 놀라게 한 대전오월드 퓨마 탈출 사건의 현장 영상을 즉각적으로 볼 수 있어 시청자 입장에서 좋았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보도국 노고에 감사드린다.</p> <p>지난 19일(수) 대전MBC 뉴스 채널 통해 귀성 소요 시간을 SNS 콘텐츠로 제작한 것을 보았다. 페이스북은 영상,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영상을 캡처해 카드뉴스 형식처럼 업로드 됐다. 개인적으로 카드뉴스 형식이 더 좋았다고 느꼈다. 일련의 사유가 있겠지만, 카드뉴스 형식이 이런 좋은 정보를 공유하기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정대식).</p>	대전MBC 뉴스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최근 유튜브 구독자 수는 7천 명을 넘어섰다. 각종 속보 등을 전달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는 6백 명을 초과했고 영상 위주의 뉴스를 전하는 인스타그램도 구독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뉴스의 가치가 수용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매체별 최적의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요 이슈를 1분 안에 해결하는 60초 뉴스 포맷도 만들어 실험 중이다. 대전MBC를 플랫폼으로 한 각종 뉴스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다.		
교양	<p>“흔들리는 유성관광특구 활로는 있는가?” (9/3)를 시청하였다.</p> <p>항상 균형 있는 시선으로 주제를 바라보려는 노력이 시사플러스의 매력이다.</p> <p>시사플러스에서 항상 사례를 소개하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가족형 테마파크로 탈바꿈해서 성공시킨 도고온천의 사례는 좋은 예가 되었던 것 같다.</p> <p>시청하면서 1913 송정역 시장 등 쇠락했지만 재정비 등을 통해 부흥한 몇몇 사례도 떠올랐다. 주요 사례 이외 기타 사례도 한 두 가지 그래픽을 통해 짚막하게 소개를 한다면 더욱 풍성하지 않을까 생각했다.</p> <p>내년은 대전 방문의 해이자, 대전시 출범 70주년, 광역시 승격 30주년이라 소개했다. 이때 대전시의 입장도 궁금했다. 대전시에서 대전 방문의 해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 번 프로그램에는 빠졌다. 앞으로 소개해 주면 좋겠다.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취재 방송하면 시청자들이 준비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다(정대식).</p>	<p>다양한 사례 취재에 대한 평가에 감사드린다. 그래픽 등 다양한 장치에 대한 지적은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다.</p> <p>향후 대전광역시의 관광 활성화 문제는 계기를 잡아 심도 있게 취재하도록 하겠다.</p>	○	
교양	대전MBC가 지역사회의 기대를 받은 새로운 대표와 간부들로 바뀌어 운영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상화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역사회의 평가와 기대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 같다. 더욱 더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요구를 잘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시청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본다.	<p>앞으로도 지역 시청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p> <p>하루 이틀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겠지만 지적하신 지역 시민사회와의 다양한 협업 등 변화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p>	○	

	<p>그런 측면에서 프로그램이나 분야별,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시사프로그램의 경우 주제선정 작업을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든지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지역사회가 참여해 진행한다든지 형식과 진행에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양흥모).</p>				
<p>교양</p>	<p>대전MBC의 공익광고를 제작할 때 시대적인 과제나 지역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면 좋겠다. 공감도가 많이 떨어진다. 금강보호캠페인의 경우 근거 없는 전설이나 사대주의적 요소(당나라, 소정방 이야기), 단순 물고기 이야기 등 식수인 대청호의 녹조 비상 문제나 4대강 사업 금강 보의 녹조 문제와 환경문제 등 최악의 금강 환경과 너무 동 떨어진 캠페인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실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본다(양흥모).</p>	<p>라디오 캠페인의 경우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향후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다.</p>			
<p>보도</p>	<p>유튜브와 SNS로 방송 공유는 방송의 기능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퓨마 사건과 관련해서도 보도를 방송과 SNS로 함께 전해서 지역민들에게 잘 알렸고 후속 보도도 잘 보도했다고 본다. 추가 보도로 대전동물원과 보문산 아쿠아리움의 야생동물 관리 실태와 운영 문제에 대해 취재하고 선진국의 동물원 운영 사례와 개선방향, 동물원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등을 다루어 주면 좋겠다(양흥모).</p>	<p>‘대전 오월드’의 퓨마 사건 당시 대전 MBC는 현장에서 기자가 보내온 영상과 정보를 토대로 트위터로 실시간 뉴스를 전달해 당일 트위터 노출만 102만 회를 기록했다. 또 오월드 현장의 유튜브 영상도 조회 수 만여 회가 넘는 등 시청자들의 정보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지상파 뉴스의 한계를 보완하는 매체로서 SNS를 적극 활용했다. 아울러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오보를 통해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킨 일부 매체와 달리 오보 없이 연이틀에 걸쳐 현장 상황을 침착하게 리드할 수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보도 후에는 퓨마 사살로 대두된 동물권 문제나 동물원의 동물 사육 실태를 짚어보는 리포트를 제작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해당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 제시 의지를 갖고 접근하도록 하겠다.</p>	<p>○</p>		